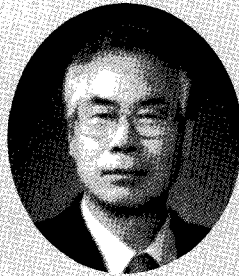


# 한국 수의(獸醫) 발달사(7)



경기도 수의사회 부회장  
이시영

## 조선시대의 수의(獸醫)서적들(3)

전호까지 소개한 마의서 이외 우리 나라에는 상당수의 마의서 및 수의서가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저자 미상의 마경이라는 책이 있으며 또한 신편집성마의방을 일본에서 증간하면서 조선우마의방이라고 하는 책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림도 아주 비슷하게 그려져 있으나 단지 한자 옆에 일본의 '가다가나'로 토를 단 것이 다르다. 또한 이서가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던 마경대전(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이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춘하추동(春夏秋冬) 4책이었으나 전해지는 것은 춘하의 2권이며, 추동은 현존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춘하집에 추동의 목차까지 있기에 대개의 내용은 알 수 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장지도(牧場地圖)인데 이는 여러

사람이 만들고 기록한 지도이기도 하다. 이상의 것이 조선전기의 수의학 서적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의 수의학 서적들이나 응골방(鷹鷓方)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임진왜란이후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실학자들까지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홍길동전을 쓴 허균(許筠)도 그의 저서 한정록(閑情錄)에서 소의 병이나 닭의 병 혹은 양어법(養魚法)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미 수의학은 생활의 한 단편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살기 위해서는 가축이나 동물의 치료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은 조선조 초기나 중기에 발간되었던 마의서들이 계속해서 중간(重刊)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일반에게 보급되었을 것이다. 또한 허균과 같은 선각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수의학 서적을 도입하였고 이를 일반에게 보급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후기에 들어오면서 마의서만

따로 발간된 것은 없고 다른 농사서적의 한 부류로서 발간되기도 하였다. 특히 후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축의 범위가 넓어 졌다는 것이다. 또한 중기에 이서장군과 같은 한 분이 모든 마의서를 만들었지만 많은 학자들 그 중에서도 실학자들이 농서를 편찬하면서 그 속에 마의서나 우의방, 또는 다른 가축을 치료하거나 기르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수의 공중 보건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학(中毒學)등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허균의 한정록을 비롯하여 박세당(朴世堂)이 쓴 색경(穡經), 홍만선(洪萬善)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유중임(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서명응(徐明膺)의 공사신서(功事新書),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北學議), 박지원(朴趾源)의 과농소초(課農小抄)와 열하일기(熱河日記), 최한기(崔漢綺)의 농정회요(農政會要), 서유구(徐有)의 임원경제지(林源經濟志)등에서 가축 질병의 치료방이나 사육방법등에 대해서 기록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것은 아니지만 청국(淸國人)인 유본원(柳本元)과 유본형(柳本亨) 형제가 쓴 마의서가 있었다. 이들은 개화이전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나 일본 문화의 한반도 진출과 함께 고유의 우리수의서적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오늘날은 도서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문화재로서 남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두 가지 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인 마경이라는 것과,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희귀본으로서 문화재로 등록된 목장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마 경 (馬 經)

저자미상의 마경은 필사본으로서 글씨체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보아서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 같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교류가 잦을 때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본어로 토씨를 달았다는 점에서이다. 또한 말 그림솜씨가 서툰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책의 표지에는 마경 단(馬經單)이라고 하고 그 옆에는 계미복망(繼尾復望)이라고 썼는데 무슨 뜻인지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미 소개한 다른 책들과 제목이 같은 경우도 있으나 완전히 다른 질병의 제목들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신편집성마의방이나 이서장군이 사용했던 마경대전이나 혹은 마경언해와는 다른 부류의 마의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권에 걸쳐서 동인 경험방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중국의 마의방의 일부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대개의 자료들은 서지학자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서지학자들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책은 우리 나라 수의학 서적 중에서 그간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것이라는 데 그 뜻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본문에 어려운 한자일 경우 우리말로 토를 단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마환탈항편에서 '이려(羸驢)'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 한자 옆에 '니노'라고 써 두었다. 이는 오늘날은 '이려'라고 읽지만 당시에는 '니노'라고 읽었던 것이다. 또한 책의 전반부에 일본의 '가다가나'로 토씨를 단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과 일본의 글씨는 책의 전반부에만 등장하며 후반부는 한자만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부 민간인들이 공부를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도 처음 몇 장만 공부를 하다가 팽개친 것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에 소개하는 것과 같으나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목차에 없는 상양마법(相良馬法), 변노마형상법(辨駑馬形狀法), 상흉마법(相凶馬法), 상치법(相齒法), 상마수요법(相馬壽夭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 마경언해나 혹은 신편집성마의방, 마경대전등에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 〈 마경의 목차 〉

1. 마환냉장졸사병도(馬患冷腸瘧 瀉併圖)
2. 마환신구니사병도(馬患新駒 尪 瀉併圖)
3. 마환탈항병도(馬患脫肛)
4. 마환강아병도(馬患薑牙)
5. 마환열통병도(馬患熱痛)
6. 마환설창병도(馬患舌瘡)
7. 마환심경열병도(馬患心經熱)
8. 마환심통병도(馬患心痛)
9. 마환계안풍병도(馬患揭鞍風)
10. 마환폐풍모조병도(馬患肺風毛燥)
11. 마환항척닌병도(馬患項脊 槩 )
12. 마환파상풍병도(馬患破傷風)
13. 마환호골과과병도(馬患胡骨把 胯 )
14. 마환심열풍사병도(馬患心熱風邪)
15. 마환한상요과통병도(馬患寒傷腰 胯 痛)
16. 마환냉시간병도(馬患冷 攏 羊 )
17. 마환신냉요시병도(馬患腎冷腰 攏 )
18. 마환비허습사병도(馬患脾虛濕邪)
19. 마환폐한토말병도(馬患肺寒吐沫)
20. 마환폐폐병도(馬患肺敗)
21. 마환폐옹(馬患肺壅)
22. 강수론( 空 嗽 論 )
23. 마환후골창(馬患喉骨脹)
24. 마환흑한(馬患黑汗)
25. 마환패형응제(馬患敗血 墜 蹄)
26. 마환흉박통(馬患胸膈痛)
27. 마환신허(馬患腎虛)
28. 마환신경통(馬患腎經痛)
29. 마환포전(馬患胞轉)
30. 마환노혈(馬患溺 血)
31. 마환수루불수(馬患垂縷不收)
32. 마환초열(馬患草 疔 )
33. 마환두창(馬患肚 脹)
34. 마환상료(馬患傷料)
35. 마환전결(馬患前結)
36. 마환중결(馬患中結)
37. 마환후결(馬患後結)
38. 마환태기태풍(馬患胎氣胎風)

39. 마환비충교수(馬患 脾 蟲咬袖)
40. 정독(疔毒)
41. 찰개방(榴 疥方)
42. 치마타파척량방(治馬打破脊梁方)
43. 치마상제방(治馬傷蹄方)
44. 치마부골저병(治馬附骨疽病)
45. 치마접창방(治馬蝶瘡方)
46. 치개창방(治疥瘡方)
47. 온역문(溫疫門)
48. 마유오십사반사증가(馬有五十四般死證歌)

### 목장지도(牧場地圖)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희귀본으로 지정된 목장지도라는 것이 있다. 전편에서 장유선생이 목장지도의 후서를 썼다고 소개한 바로 그것이다. 장유선생은 이서가 쓴 마경초집언해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는데 마정에 관심이 많았기에 목장지도 후서를 쓰기도 하였다. 목장의 개설과 폐지는 수의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 목장지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면 :진헌마 정색도(進獻馬 正色圖);  
상단에는 진헌마와 정색도에 대해서 기록하였으며, 하단에는 살곳이목장(箭串: 과거 독점경마장 근처)의 풍경과 말들이 놀고 있는 상태가 그려져 있다. 뒤편의 높은 산은 아차산을 그린 것 같고, 사복시

제조의 근무처였던 화양정(華陽亭)이 그려 있으며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다. 오늘날 화양동이라는 이름은 화양정에서 유래된 것이다. 진헌마에 대해서는 글자가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제일 처음에 銀尾...黑尾...등과 각종 말의 모색에 관한 단어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서 진헌하는 말의 모색의 규격을 정해서 기록한 것 같다. 임금에게 진상하는 말은 잡색마(雜色馬)를 제외하기 위해서 정한 규격일 것이다. 정색도 21필이라는 제목의 글씨체는 비교적 선명하다. 그러나 마지막의 2개의 모색은 읽을 수 없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즉 말의 모색에 관해 기록하였는데 이는 말의 색깔에 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인 것 같다.

- 철청총(鐵靑馬總: 온몸이 푸른 털에 흰털이 조금 섞인 말을 이르며 철총이라고 하면 검푸른 털이 섞인 얼룩말을 이른다)
- 자류마(紫驪馬: 류마는 갈기는 검고 배가 흰말)
- 연전총(連錢馬總: 동전을 늘어놓은 것 같은 동글고 어롱 어롱한 무늬가 박힌 말)
- 백송고라(白松古羅: 고라말은 등어리만 검은 누른 말)
- 적자불(赤者佛),
- 백가리온(白加里溫: 가리온은 몸은 희고 갈기는 검은 말)
- 영설아(炯雪阿)
- 오명마(五明馬: 오명마는 네발과 이마만 희고 온몸이 검은 말)
- 청가라(靑加羅: 가라는 털빛이 검은 말)

- 구량마 (仇郎馬; 구령말은 털이 밤색 빛인 말)
- 적다O자 (赤多O者; 절따말은 붉은 색깔의 말)
- 황고라 (黃古羅)
- 류거할 (騮留巨割)
- 포도자불 (葡萄者佛)
- 공골마 (公骨馬; 털빛이 누른 말 황부루)
- 오류마 (烏騮馬; 오류마는 온몸이 검은 빛의 말)
- 담가라 (淡加羅)
- 표적다대성 (表赤多大星)
- O부루 (夫妻; 부루말은 몸빛이 흰말)

의 2개는 읽을 수 없다. (괄호 안에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은 우리말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들 용어들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고 몽골에서 유래된 모색명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였으나 일부는 백 청 황 등의 한자를 추가해서 말의 모색을 나타내게 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원래는 청충 혹은 가라말 고라말 가리온 절따말이었으나 그 앞에 색깔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 말의 색깔들은 아직도 제주도의 일부지방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도의 각 면에는 상단에는 각 도부군현(道府郡縣)에 있는 목장의 이름과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해당 목장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3-7면; 경기도에는 총 15개소의 목장이 있으며 1,387필두의 말 중에 수말(雄馬)이 574필이며, 소(牛)가 581두중 수소(雄牛)가 421두이며, 목자(牧子; 목부인데 이들은 세습직임)는 874명이다. 현재 폐장된 곳은

12개소이다. 장단부에는 호곶내 유무지곶(개성을 수도로 하고 있을 때 살곶이 목장과 같이 설치되었다), 강화부에는 진강장, 북일장, 매음도, 주문도, 장봉도, 신도, 거울도, 포로도, 마법도의 9개목장. 인천부에는 자어도, 용유도, 무의도, 신불도, 모도, 난지도, 사야곶의 7개목장. 남양부에는 대부도, 선감도, 령흥도, 소홀도, 소우도, 덕적도, 승황도, 이작도, 독갑도의 9개 목장. 수원부에는 흥원곶, 양야곶, 풍도의 3개 목장과 양성현의 괴태곶.

8-9면; 공청도(公淸道; 오늘날의 충청도)에는 총 613두의 말 중에서 수말이 167두이며, 목자가 705명이다. 면천군에는 창대곶, 서산군에는 대산곶, 홍양곶의 2개목장, 태안군에는 이산곶, 지령산, 신곶, 독진도, 안면곶, 대소산의 6개목장이 홍주목에는 원산도.

10-20면; 전라도에는 말 2,465두중 수말이 927두이며 목자는 1,006명이다. 옥구현에는 기식도, 함평현에는 니하산, 영광군에는 임치도, 고이도, 다경곶, 증도의 4개 목장, 무안군에는 가라곶이, 나주목에는 자은도 기좌도, 안창도, 장산도, 압해도, 지도, 우곶도의 7개목장이며, 진도군(珍島郡; 진자를 珍의 고어인 珍으로 쓴 것이 특징이다)에는 지력산, 침찰산, 부지산의 3개목장, 해남현에는 황원곶, 강진현에는 고미도, 신지도의 4개목장. 장흥부에는 래덕산, 득량도, 장내곶의 3개목장, 낙안군에는 장도, 홍양현에는 도양장, 녹도, 소록도, 소미도, 중니도의 5개목장, 절이도

(折 朶 島)에는 평내이도, 사일매도, 시산도의 3개목장, 순천부에는 백야꽃, 백야도, 기리도, 유도, 대화도, 소화도, 사비도, 목모도, 량도, 돌산도, 성두꽃, 내라노, 외라노, 수태도, 갯도, 제이도의 16개 목장.

21-27면 : 경상도에는 총 1,488두의 말 중에서 수말이 484두이다. 목자는 166명이다. 남해현에는 동천꽃 금산장의 2개목장, 진주목에는 흥선도, 창선도의 2개 목장, 고성현에는 해평장, 포도장의 2개 목장, 거제현에는 한산도, 산달도, 용초도, 가조음도, 다천도, 구천동, 장목포, 영등꽃, 구조라포의 9개 목장, 칠원현에는 구산꽃, 웅천현에는 가덕도, 동래부에는 절영도, 오해야항, 석포의 3개 목장, 김해부에는 금단꽃, 명궁도의 2개 목장, 울산부의 방어진, 장기현의 동진꽃.

28-30면 : 함경도에는 말의 수가 670두이며 그중 수말이 197두이며 목자는 440명이다. 문천군에는 사늘도, 영흥부에는 말웅도, 함흥부에는 도련포와 화도의 2개 목장, 흥원현에는 마랑이도, 단천부에는 두언대, 은성군에는 사초도.

31-34면 : 황해도에는 말 340두중 수말이 95두, 소가 314두중 수소가 257두, 목자는 421명이다. 해주목에는 용매도, 연평도, 보음도의 3개 목장, 강익현에는 등산꽃, 순위도의 2개 목장, 웅진현에는 창린도, 기린도, 장연의 3개 목장, 장연부에는 백령도, 풍천부에는 속도, 은율현에는 석도.

35면 : 평안도에는 말이 992두이며 그중 수말이 357두이며, 목자는 176명이다.

철산부에는 대꽃, 단도의 2개 목장, 선천부에는 신미도, 탄도, 도치꽃의 3개 목장.

36면 : 상단에는 제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주에는 지도가 따로 없으며 다른 지방의 지도란에는 전국의 목장 종합서라고 할 수 있는 각도별의 목장명을 기록하였다.

제주목에는 목자가 754명이며, 말 5,788두중 수말이 2,017두이다. 정의현에는 목자 365명이며, 말 2,077두중 수말이 649두이다. 대정현에는 목자 126명이며, 말 1,248두중 수말이 429두이다. 별목장(別牧場)은 목자 141명이며, 말이 2,605두이며, 수말이 867두이다. 제주의 총 목자수는 1,386명, 말이 12,411두이다. 제주도편에 마지막에 별도로 표시된 우도(牛島)에는 말이 410두 수말이 176두이다. 제일 끝 부분에 전국상황을 기록하였다. "제주를 포함하여 전국의 목장총수는 138개소, 현재 설치된 곳은 53개소, 말은 총 20,213두이며 수말은 6,939두, 암말은 13,274두이며, 소는 895두인데 수소가 683두, 암소가 212두이다. 목자는 5,178명이다.

이 목장지도는 훼손이 심하여 글자를 구분하기가 힘든 곳이 많다. 특히 후서는 일부가 탈락되어 전문을 읽을 수 없으나 장유선생이 쓴 후서는 계곡집에 이 원문이 실려 있어 쉽게 읽을 수 있으나 정유성 선생이나 혹은 정태화 허목선생들이 기록한 후서는 일부가 탈락되어 전문을 이해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이 분들의 문집에서 원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독할 수 있는 원문만이라도 소개하므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牧場地圖後序

"馬政國之重務也 周官校人 實掌王馬之政而牧師掌牧地 皆有 禁而頒之 夫畜牧猶稼穡 以得地爲先 故周有非子而必取沂渭之間 唐有張萬歲王毛仲而必就 右河西而後馬大蕃息 然則牧地又馬政之本也 國家設牧場多在洲島 蓋以就不食之地也 國初盛時 宜無有場而無馬者 升平既久 馬政漸弛 當宣廟中年 牧場之廢者多至四十餘所 因經壬辰之變 繼以昏朝亂政及丁卯虜難 萬事無復 舊觀 卽群牧之凋 無足怪也 臣 曙待罪太僕有年所牟 日夜思所以稱

上任使之指 建請慎簡監牧而嚴其課績 其於馬政 蓋不敢不盡其心力牟 然計甲戌考牧匹數 視平時殆減三之一 而牧場之廢者幾乎加倍牟 壞久者難補 理亦宜爾 臣 曙謀於寮案 曰 馬之耗者 猶可以漸息也 牧地一失 不可復得 諸場之廢者多牟 若因循弛 爲有力者所侵冒 後欲復之 不亦難乎 今唯有修明圖籍 後人有所考據 不至失墜 此吾輩事也 本寺舊有牧場地圖 經亂放失久牟 延令諸監牧各寫送牧場圖 合爲一編 凡幅員 狹 牧畜牝牡 牧子多寡之數 悉書于其上 旣成投進 以備

睿覽 藏其副于本寺 又送春秋館 藏諸史庫 我國八道唯江原道無牧場 京畿三十場 有馬者十六所 監牧官二員 公清道十場 有馬者四所 監牧官一員 全羅道四十二場 有馬者十四所 監牧官三員 慶尙道二十一場 有馬者四所 監牧官二員 咸鏡道六場 有馬者五所 監牧官一員 黃海道十場 有馬者七所 監牧官二員 平安道四場 兵後皆廢 摠之牧場 百二十三所 而有馬者五十廢馬者七十三 耽羅在海外 關西四場爲遼民所占 箭串郊於國都 故今皆不圖 其餘皆圖 場之廢者 往往募民開田 收其入以佐芻 或有人於諸宮及衙門者 異時國馬漸蕃 則當次第復舊 此正今日作圖之意 而深有望於方來者也 臣維亦提調 與聞其事 謹以識諸卷末 崇禎八年乙亥 夏四月司僕寺提調 奮忠贊謨立0000功臣 正憲大夫新豐君 臣 張維謹 "

계곡집에는 근이식권말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승정팔년....장유근서가 있지만 글자사자가 탈락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다.

장유가 서문을 쓰고 난 후 다시 보강된 듯하다. 사복시 제조 정태화 정유성이 쓴 글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복시제조 허목의 이름도 있다.

"臣於丙子亂前 職 太僕正及見 其時提調完豐府院君李曙 新豐府院君張維 作諸牧場地圖 竝寫 文奉進0000副于寺中以便他日之按考 臣 嘗歎賞而不000臣00提調 入公壁間破屏卽昔年所觀牧0000本尙在 大內與否而場地之廢 興馬牛之00000頗有不同

臣與同任提調 臣鄭維城相議圖寫開錄〇〇〇  
今之數以備

睿覽 庶使前二臣之意久而不泯非取其繪事  
也〇〇〇〇〇 司僕寺提調大匡輔國崇祿大夫行  
判中樞府事臣鄭太和謹識

仁祖中太僕提調 臣曙 臣維 大修馬政 進一  
百十九牧場國仍作浚 具言太僕古事盡卒  
其浚累經變亂至

孝宗之末則〇籍須殘缺畜牧衰少牧場多爲奔  
壞當時提調 臣太和 臣 維城〇破屏舊 圖更  
摸寫以 進亦列其大略而有前浚不同者今又  
已數十年浚馬政益解弛移收置鎮屯田再變  
而古事紛曼者十三四然有舊面可述 臣穆議  
於同任提調 臣錫胄泛古圖摸盡如舊具錄古  
今事以 進其副本一藏之太僕一藏太史亦修  
舊貫也 箭串國之東郊之地南濱大江〇〇四十  
里長湍壺申高麗廢畜牧其田計結四百十四  
播種五百東海無牧場西南北海諸島嶼牧場  
百十九所是也 無馬棄場七十三既有十二監  
牧增置四屯將 又一屯今上四年分置 掌廢  
牧墾田田租之事歸之於芻 財用吏胥工匠  
百隸大小稍食歲出八千穀不之自壬辰以國  
家〇事東萊釜山昌 龍媒皆置鎮戍海坪最大  
鎮松家元山古彌〇也申分屬於諸營屯田六貴  
戚大家折受者三〇內〇〇明禮宮一近世以來  
中外多事西海有虛警文武者〇〇〇治兵海戍元  
山 島太僕畜牧舊地於是〇〇〇〇〇〇〇江

孝宗末 移耽羅馬 今畜牧蕃息 南陽大部前  
年又〇〇〇〇〇身彌皆一種長 圖 〇串東萊絕  
影出善馬北〇〇〇〇納 末應都 連馬郎耳豆彦  
台平稱善馬山深草茂〇〇〇〇者多駿 云諸島皆  
然漆川供牛牲祀部所職誌〇〇〇〇〇〇〇北方多獸北

海諸島出善馬多於田獵馳騁 婁石〇時貢  
石 苦矢日候馬牛西向眠者三年知大國所  
在云馬之性知覺最神前時移馬於別島水草  
不樂 馬相泛故島或海遠風濤惡馬多溺海  
不出云

上卽位之 四年三月四十四日 乙卯 司僕寺  
提調 大匡輔國 崇祿大夫行判中樞府使 臣  
許穆 拜手稽首謹識

(본문중 '〇' 표시는 꺾자 혹은 훼손이 심해  
서 알수 없는 자를 표시한 것임)

이 지도를 최초로 만든 이는 이서장군과  
장유선생이다. 즉 인조 13년(1635년)이며  
그후 효종 9년(1658년) 정태화 정유성  
김석주등이 다시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숙종 4년(1678년) 3월에 허목이 추가로  
지은 것이다.

목장지도 후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존  
년대를 알아야 이 지도가 만들어졌을 때  
의 마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의 극도  
로 나라가 파쇄하고 기강이 무너진 상태  
이기에 마정도 상당히 문란하였고 각처에  
서 폐목장(廢牧場)이 속출할 때이다. 목장  
지도를 만든 목적은 언젠가는 다시 목장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화하였다는데  
그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이 지도  
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청에서 비치하여 차후를 대비한 것  
이다. 마지막으로 후서를 추가한 허목은  
숙종 4년 8월에 이를 병풍으로 만들어



임금에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쇠퇴한 마정을 복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 이서(李曙) 1580(선조 13)-1637(인조 15년)
- 장유(張維) 1587(선조 20)-1638(인조 16년)
- 정유성(鄭維成) 1596(선조 29)-1664(현종 5년)
- 정태화(鄭太和) 1602(선조 35)-1673(현종 14년)
- 허목(許穆) 1595(선조 28)-1682(숙종 8년)
- 김석주(金錫胄) 1634(인조 12)-1684(숙종 10년)


목장의 위치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든 목장이 섬이나 혹은 곳(串)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강원도에 많은 목장이 개설되는데 비해서 당시는 강원도에는 목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놀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신라 시대부터

목장은 주로 섬에 위치하였다. 중국의 정사(正史)인 당서(唐書)에서도 신라시대의 목장의 상태를 기록한 것을 보면 섬에 가축들을 방목하였다고 하였다. 곳이라는 곳은 앞면은 바다나 혹은 강이며 뒷면은 산으로 둘러 쌓인 곳을 이른다. 바로 지형적으로 섬과 같은 기능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섬이나 곳에 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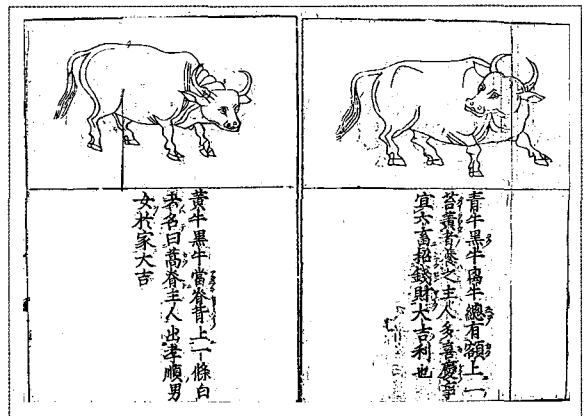
첫째, 말이 도망을 가거나 혹은 말 도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다.

둘째, 섬에 사는 사람들을 목자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섬은 말 관리하기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조 중기부터 섬사람은 육군으로 가고 육지 사람은 말을 다룰줄 모르기에 해군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1] 일본에서 발간된 朝鮮牛馬醫方 조선우마의 방일부. 한자 옆에 일본의 가다가나로 토를 달았다.



[그림 2] 일본에서 발간된 朝鮮牛馬醫方의 牛醫方의 일부.

